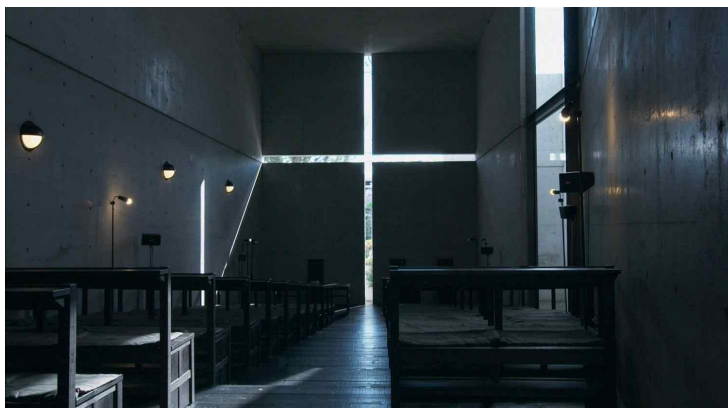


안도 다다오 감상문

(Tadao Ando)



202131001

곽성신

안도 다다오는 내가 건축학과에 입학하기 전 읽었던 책에서 그리고 원주에 뮤지엄 산이 완공되었을 때쯤 많이 들었던 이름이었다. 그 당시 나는 ‘빛의 교회를 설계한 건축가’ 그리고 ‘유명한 건축가’로만 알고 있었다.

영화에서 안도 다다오 설계사무소의 구조가 간략하게 나와 있었다. 일의 진행 상태를 알기 위해 그는 전화기를 모두 1층에 배치하고 위층에서 아래층이 보이는 구조였다. 그 건물을 보고는 부하직원으로서는 항상 압박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표인 안도 다다오로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구조라고 생각했다. 일의 진행 상태를 쉽게 알 수 있으니, 대처도 빠르게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안도 다다오의 대표 건축물 빛의 교회는 신도들이 보고 있는 벽면에 통유리로 십자가 모양을 낸 것이다. 그렇게 신도들은 빛이 만들어낸 십자가를 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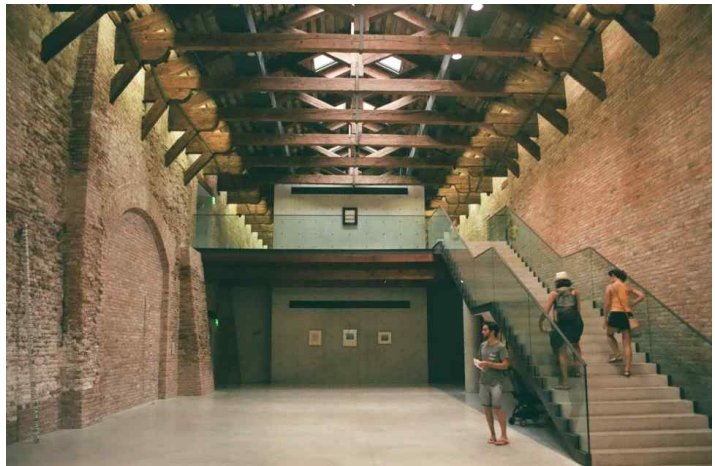
안도 다다오는 20대에 회사를 창립했지만, 일거리가 없어 계속해서 오사카 시에 자신이



구상한 오사카의 모습을 실현하고자 여러 건축적 제안했다고 한다. 물론 시는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시에 찾아간 안도 다다오의 의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의 건축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건축학도로서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도 다다오가 이탈리아 패션 회사를 위해 지어야 했던 건축물은 국제적인 문제에 직면했어야 했다. 국가간의 건축 양식과 재료에 차이가 있던터라 건축가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였다. 하지만 안도 다다오는 안 좋았던 상황에서도 재료를 직접 만져보고 관찰하여 건축주와 그 환경의 니즈에 맞는 건축물을 설계하였다.

안도 다다오가 폰타 델라 도가나 내부를 설계할 당시 옛 건물 안에 새 내부를 설계하는 건축주의 의뢰에 안도



다다오는 이전 건물의 벽면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벽돌 사이에 난간을 고정시키는등 새 건물 내부와 이전 건물의 내부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였다. 자신의 방식만 강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건축가의 방식도 존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오시마 현대 미술관은 땅속에 건축되었지만, 천장에 원형 유리를 통해 햇볕이 상당히 잘드는 미술관이다. 안도 다다오는 건물이 자연풍경을 훼손시키는 것을 막기위해 최대한 땅속에 지을려 노력했다고한다. 그리고 건축은 외관보다는 내부에서의 체험이 마음에 더 깊게 남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인지 미술관에서 햇볕을 받으며 쉬고있는 사람들이 편안해 보인다. 그는 빛의교회를 짓던 나오시마 미술관을 짓던 클라클 예술원을 짓던 항상 자연과 함께하는 건축을 중요시 여기며 실천해 왔다. 햇빛, 바람, 물 등 자연환경이 함께하는 공간을 설계하였으며 건축주와 나라의 요구에 맞는 건축물을 지었다. 건축가는 건물을 지을 때 자신의 창의성과 독창성도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요구되는 조건들을 만족시키며 자신의 설계도면을 실현 시켜야 한다. 그게 건축가가 가진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 조건과 요구들을 만족시키며 끝내 자신이 생각한 이상적인 건축물을 짓는 것이 건축가의 책임이자 권리라 생각한다.